

啓明醫大 論文 1335편의 分析과 討議*

啓明大學校 醫科大學 麻醉科學教室

全在奎·裴政仁

= Abstract =

An Analysis of Medical Research Works in Keimyung Medical School (1335 cases)

Jae Kyu Cheun, MD; Jung In Bae,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Taegu, Korea*

Since the school of medicine was established in 1981 and the Keimyung University Medical Journal was first published in 1982, research works have been growing rapidly in quality as well as in quantity for the past 9 years.

It now has an accumulation of 1335 articles. Therefore, it has been decided to classify and analyze the 1335 articles according to the subject materials in order to improve further our research works for the future.

Key Words: Analysis, Medical, Research, Works.

緒 論

1899년 濟衆院으로 出發하여 91년의 傳統을 자랑하는 오늘의 東山醫療院이 된 것이다. 1981년에는 啓明大學校와 合併하여 醫科大學이 出帆하는 歷史的 사실부터 10돛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한 世紀를 바라보는 歷史性을 지닌 東山病院의 진료는 國內外的으로 자랑할 만하여 醫科大學의 歷史는 짧다하겠으나 튼튼한 附屬病院위에 세워져야 하는 醫科大學의 基礎가 東山病院위에 세워졌으니 가르치는 일과 研究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이 學校의 具實을 잘 감당하여 왔다. 지금 까지는 진료에 全濼하여 金字塔를 쌓아 올렸고 짧은 期間동안에 가르치는 일에 全濼하여 學生들로 부터 좋은 成績을 얻었다. 그러나 學校의 使命中에서 빼놓을 수 없는

研究(research)에는 다소 輕視한 傾向도 없지 않으나 他校에 비하여 못지않은 努力으로 많은 論文을 發表하였다. 此際에 우리들의 研究에 박차를 가하자는 教授 모두의 所望이 한곳에 모아져 금년도 教授研修會의 主題로 삼게되어 討議한 본 研究의 結果를 書面으로 내어 놓게된 것이다.

우리의 學問은 새로운 것을 研究하고 公人 앞에서 發表하여 서로의 知識을 交換하므로써 醫學의 發展을 거듭하게되는 것이다. 韓房에서 말하듯 所爲 秘房이라 하여 自己만 알고 농작안에 가두어두는 知識은 참 知識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 學問 發展에도 寄與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學問은 새로운것을 研究하고 즉시 世界 곳곳에 發表하여 公認을 얻을 때만 研究로써 價値를 가지게 된다.

지난 9년 동안 刻苦의 努力으로 이루어진 정성이 담긴 論文들을 되돌아보며 비록 不足한 점이 있다

* 이 논문은 1990년도 계명대학교 울중연구비 및 동산의료원 조사연구비로 이루어졌음.

할지라도 우리의 論文을 우리가 所重히 여기며 分析하여 反省해 봄으로 앞날의 더욱 發展的인 研究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아 힘들게 모은 資料를 分析해보게 된 것이다. 本 著者들은 啓明大學校 醫科大學이 設立된 1981년 부터 1989년까지 만 9년동안 揭提한 1335편의 論文을 對像으로 檢討, 分析해서 이에 報告 드리고자 한다.

每年 發表된 論文數는 增加하여 1988년 198편이 揭提되었고 論文數는 每年 增加하는 推勢였으며, 基礎醫學教室에서 223편, 臨床醫學教室에서 12편을 發表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9년간 啓明大學校 醫科大學에서 發表된 論文은 量的인 成長과 質的인 成長도 顯著함을 보여주었다.

材料 및 成績

2) 論文의 種類別 分類(표 2, 그림 2)

1) 論文數의 校室別 및 年度別 分布(표 1, 그림 1)

臨床的考察, 統計的考察, 症例報考, 他 教室과의 協同論文 (특히 基礎醫學教室과 臨床醫學教室과의 協同), 動物實驗등으로 分類하였다. 해가 거듭됨에 따라 논문수도 增加하였을 뿐 아니라 論文의 種類도 多樣하였다. 9년간 1335편의 論文이 發表되었고 症例報考는 18%이며 症例報考는 論文題目에 症例報

啓明大學校 醫科大學이 設立된 1981년 39편의 論文이 發表되었으며 1982년 109편, 1983년 128편으로

Table 1. Department Distribution of the Articles

Depart\Year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SUM
ANATOMY		3	1	4	2	6	6	5	3	30
PHYSIOLOGY		4	2	2	1	5	3	3	3	23
CHEMISTRY		1	5	2	3		6	5	5	27
PATHOLOGY	1	4	5	4	5	12	16	8	15	70
PREVENT MEDICINE		4	4	2	5	2	7	3	3	30
MICROBIOLOGY			1		2	4	2	2	3	14
PARASITOLOGY		3	3	3	3	3	3	4	2	24
PHARMACOLOGY	1				1	1		1	1	5
INTERNAL MEDICINE	2	16	13	14	26	15	27	26	12	151
NEUROLOGY				6	8	5	9	6	8	42
PSYCHIATRY		4	1	6	6	8	7	5		37
GENERAL SURGEY	3	13	15	17	22	18	15	12	22	137
CHEST SURGEY	2	2	2	6	6	3	7	5	7	38
ORTHOPEDECS	3	4	3	2	7	5	4	5	6	39
NEURO SURGERY	2	4	2	3	4	3	6	8	5	37
PLASTIC SURGERY	5	3	6	4	5	4	3	3	3	36
OBSTETRICS&GYNECOLOGY	1	1	13	8	13	16	10	12	15	89
PEDIATRICS	3	15	16	10	4	15	7	9	11	90
OPHIHALMOLOGY		4	3	2	2	3	9	10	4	37
ENT		4	2	1	2	5	5	7		26
DERMATOLOGY	6	3	8	9	6	5	7	5	6	55
UROLOGY		8	11	9	6	5	7	5	6	55
ANESTHESIOLOGY	6	4	9	11	12	11	4	13	8	78
RADIOLOGY (DIAGNOSTIC)	2	4	1	9	11	11	12	9	13	72
(THERAPEUTIC)							7	1	6	14
CLINICAL PATHOLOGY				3	1	1	4	5	5	19
DENTISTRY	2	1	2	2	1	2	3	3	2	18
TOTAL	39	109	128	139	164	178	197	187	189	1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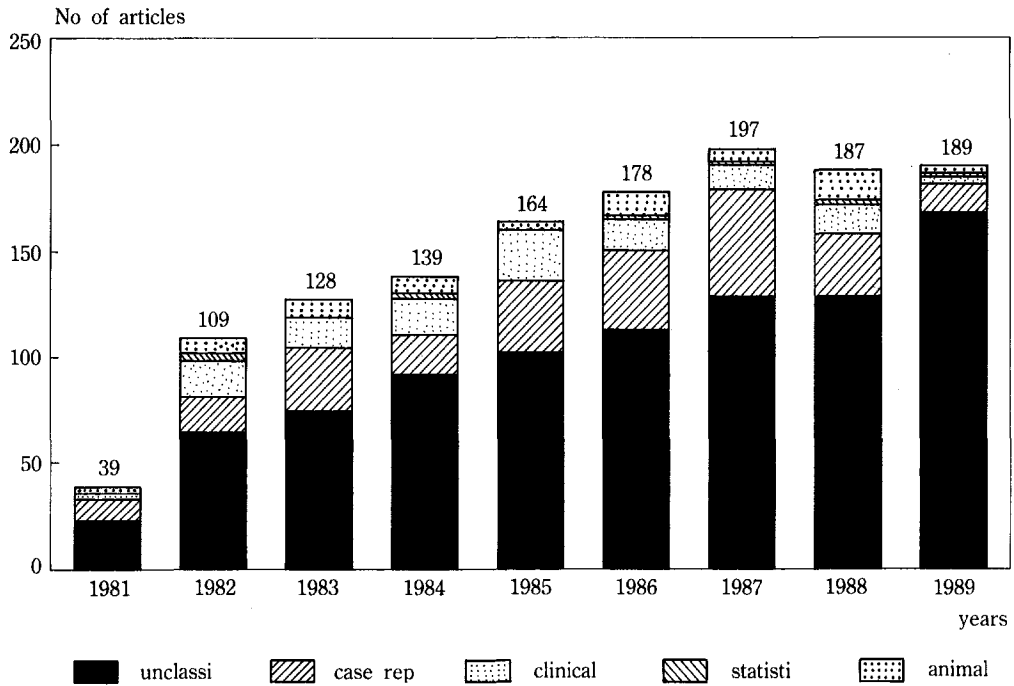


Fig 1. Annual distribution of the articles.

考라고 분명히 銘記된 것만을 골라서 記錄했기 때문에 내용면에서 分類해보면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 하리라고 본다. 특히 1987년에 發表된 論文 197편중 症例報考가 50편으로 25%을 차지하였다. 증례보고는 著者の 주장이 들어있지 않고 外國論文의 症例를 引用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짐작된다. 症例報考 다음으로 臨床的 考察(9%)과 統計的 考察(0.7%)이 많았으며 세계 다른 곳의 論文集을 보면 clinical consideration, statistical consideration 즉 臨床的 考察이란 題目을 좀처럼 볼 수 없는데 비하여 本校 論文에서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英語의 consideration을

國語로는 考察이라고 하는데 考察은 discussion를 意味하며 한국에서 善好하는 題目으로 생각되나 論文題目으로는 좋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他 教室과 協同 研究한 論文은 표 2,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이며 특히 基礎醫學教室과 臨床醫學教室과의 有機物인 關係에 重點을 두고 調査하였지만 이중에는 臨床醫學教室 상호간의 協同으로 된것도 많으나 장려해야 할 일들이다. 基礎醫學教室과 臨床醫學教室이 協同하여 研究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며 함께 研究할 수 있도록 行政的 制度上的 뒷바침이 따라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Table 2. Department Distribution of the Articles

Article\Year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SUM(PERCNT)
CLINICAL	3	17	14	16	24	16	11	14	4	119(9%)
STATISTICAL		4		1		1	1	1	1	9(0.7%)
CASE REPORT	10	17	29	19	32	37	50	29	13	236(18%)
JOINT	9	1	4	3	5	10	18	13	4	67(5%)
ANIMAL	3	5	10	10	5	11	6	15	3	68(5%)
TOTAL										499(37.7%)

CLINICAL : clinical report STATISTICAL : statistical analysis
 JOINT : collaborated work ANIMAL : animal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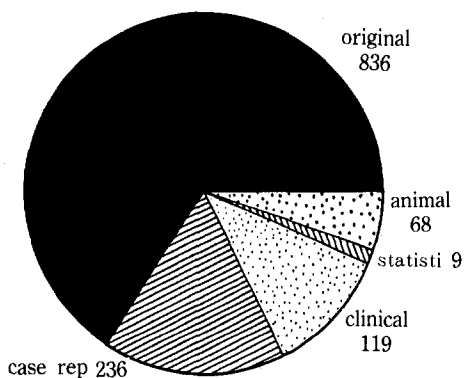


Fig 2. Distribution of the articles according to the titles.

動物實驗 論文은 매우 바람직하게 每年 增加하는 推勢로 1983년과 1984년에 各各 10例, 1986년과 1988년에 各各 15例로 增加하였다. 本校에서는 動物實驗을 위한 中央動物實驗室이 있고 基礎醫學教室에는 個教室別 研究室들이 따로 있지만 臨床醫學教室도 모두 實驗室을 가지고 있음이 우리의 實情과 다르다. 教室別 研究室 運營은 裝備 및 人員管理 등의 많은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可能 함으로 특진비를 教室別 研究室 運營에 使用할 수 있으면 좋으리라 생

각된다.

動物實驗의 論文이 해마다 增加하고 있는 推勢이므로 行政府는 研究에 더욱 投資하고 研究者를 장려할 수 있는 方案을 提示하여 質的으로 더욱 훌륭한 論文을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碩士 및 博士學位 論文 뿐만 아니라 校內外的으로 研究費(grant) 申請을 많이 活用하면 더욱 좋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中央動物實驗室에 비치되어 있는 設備 및 기자제의 현황은 대단히 貧弱하다. 例를 들면 개실험을 하려면 麻醉器가 없고 實驗할 基本裝備가 없어서 手術室등 다른곳의 裝備를 빌려가는 境遇가 많아 中央實驗室의 裝備 補強은 必要要件이라 할 수 있다.

3) 各 論文의 紙面數에 따른 分類(표 3)

6쪽(page)의 論文이 가장 많았으며 4,5,6,7,8쪽이 거의 大部分이고 症例報考의 大部分은 3내지 4쪽이 있으며 21쪽 以上되는 論文數도 6편이었다.

4) 參固文獻數에 따른 分類(표 4)

參考文獻은 論文作成에 引用하여 參考할 目的임으로 별로 參考하지 않은 引用文獻을 많이 羅列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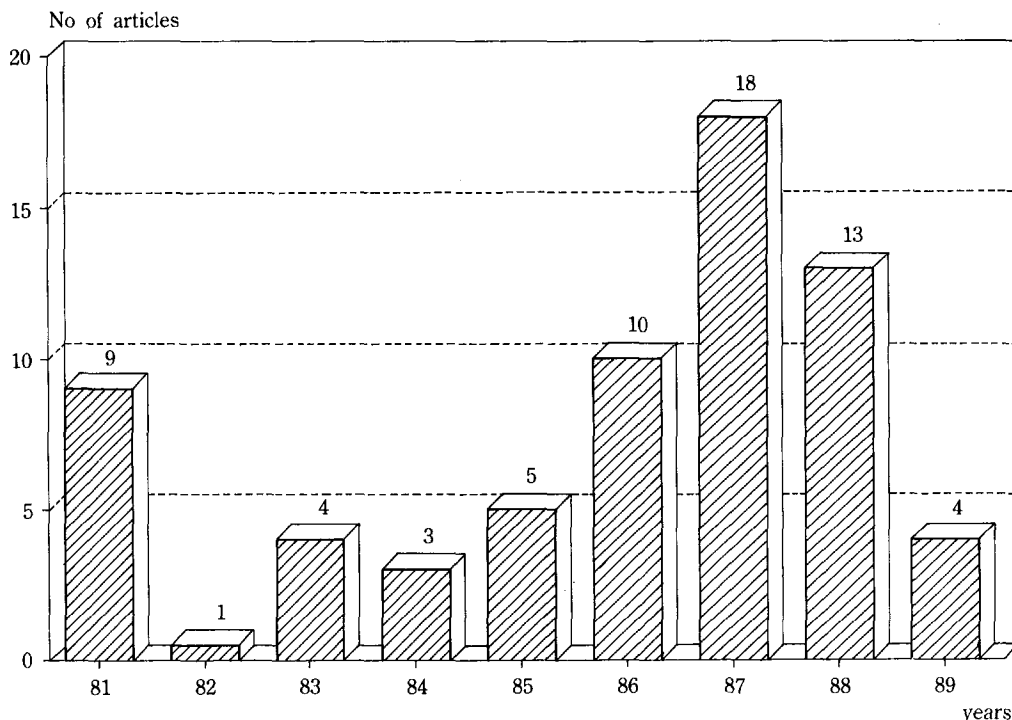


Fig 3. Number of the articles collaborated with other departments.

Table 3. Distribution of the articles by the pages

year pages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3	1	3	3	5	1	3	2	3	6
4	6	14	23	24	15	29	18	17	14
5	5	12	27	18	27	21	36	16	27
6	9	23	19	30	38	30	41	42	44
7	8	15	21	21	31	27	35	44	36
8	5	12	11	13	15	27	20	27	23
9	2	13	10	8	12	11	16	13	15
10	2	4	5	6	9	14	10	10	7
11		3	2		7	10	3	3	8
12		3	2	1	5	4	7	5	4
13		2	3		1	1	7		4
14			1					2	
15		1		1				1	1
16				1		1	2		
17		1		1				2	
18									
19									
20									
21 ↑			1		3		1	1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前提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參考文獻數가 10편 以下에서 80편 以上을 引用하기 까지의 많은 差異가 있었다. 이와 같이 參考文獻의 引用은 論文作成의 範圍와 重量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簡單한 症例報考에 너무 많은 參考文獻의 引用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느껴졌다. 대체로 11-40개의 參考文獻의 引用이 追加되며 外國 參考文獻이 引用되었으나 우리의 論文도 加급적 參考文獻으로 引用하면 상호격려하는 意味에서도 더욱 좋으리라 사료되었다.

5) 著者數에 따른 分類(표 5, 그림 4)

單獨著者 129편, 2人 著者 325편, 3人 著者 289편, 4人 著者 258편으로 주로 2-4인의 論文이 大部分이었으며 한편의 症例報考에 著者數 6-7인 以上의 論文도 2편이었다. 한편의 論文에 8人 以上의 著者數가 수록된것은 實際적으로 研究에 參與하지 않은 著者의 이름도 등제하는 傾向이 있음을 試寫하였다.

6) 發表된 論文集에 따른 分類(표 6, 그림 5)

全體 論文의 72%는 각 分科學會誌에 發表되었으며

Table 4. Distribution of the Articles by Number of the Reference

No. of References\Year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10	2	1	3	6	12	10	17	16	19	3
11-20	14	34	51	51	60	60	66	47	62	
21-30	15	16	28	39	51	49	57	56	55	
31-40	3	25	17	16	24	29	31	35	36	
41-50	13	12	12	9	9	16	16	25	22	
51-60	1	4	6	8	6	3	8	4	4	
61-70			4	1	2	2	3	3	1	
71-80			3		1			3		
81			1		1	1		1	1	

Table 5. Distribution to the articles of the authors

no. of authors\year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SUM
1	4	10	13	20	25	15	9	14	19	129
2	13	25	37	40	42	33	40	38	52	325
3	10	32	36	40	46	712	65	47	42	389
4	9	20	20	18	34	29	43	47	35	258
5	5	13	6	8	6	18	20	27	34	137
6		4	10	12	10	10	17	6	3	72
7		1	2	1		2	2	4		12
8			1	1			1	3		6
>9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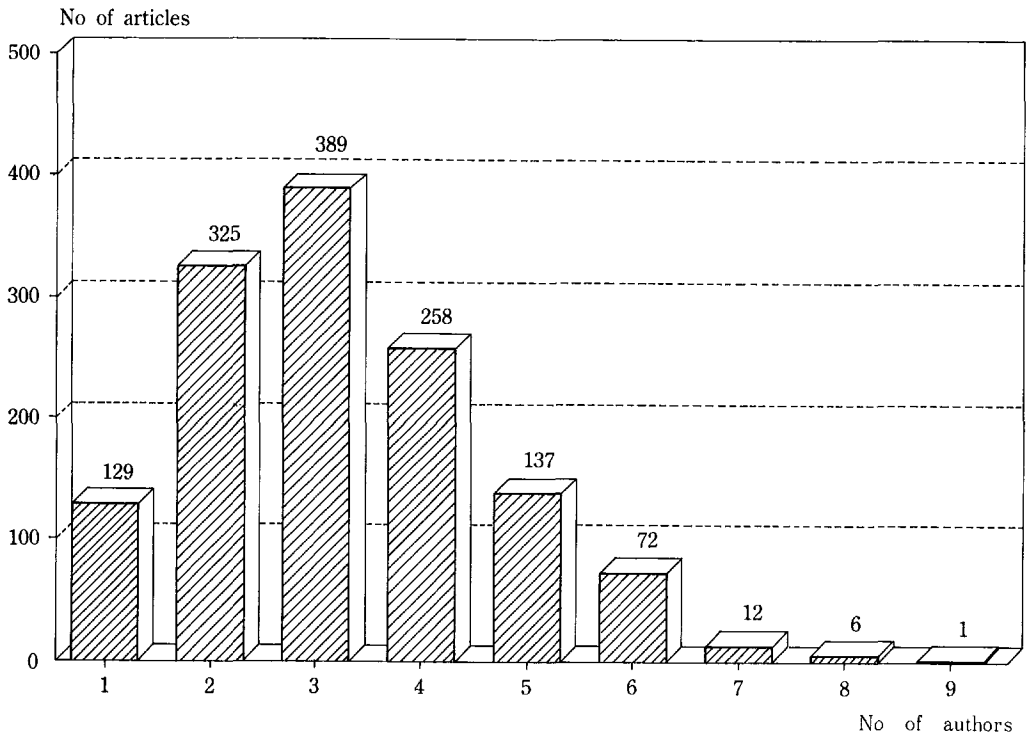


Fig 4. Number of the articles according to the auth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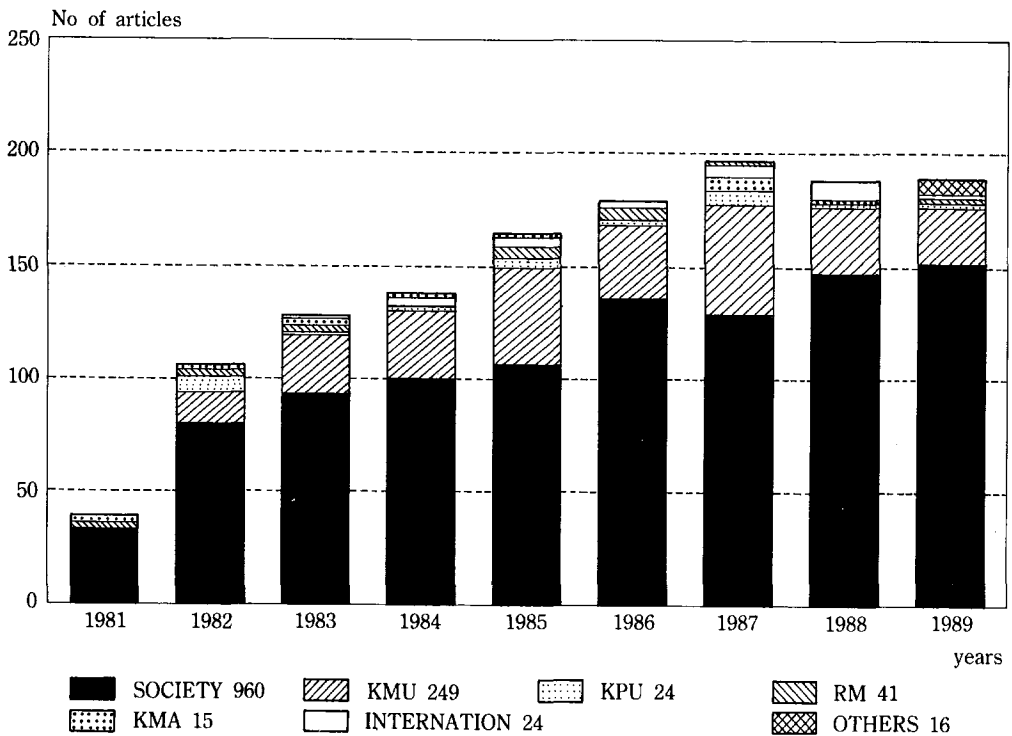


Fig 5. Distribution of the articles by the name of Journals.

Table 6. Distribution of the Articles by the Name of Journals

Journal Name\Year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SUM(PERCNT)
KUM		14	27	31	43	32	49	30	23	249(19%)
KPU	1	7	1	1	5	2	6	1	2	24(2%)
R M	2	23	3	1	4	4	1	1	2	24(2%)
KMA	3		3				6	1	2	15(1%)
F J			1	3	4	3	4	8	1	24(2%)
OTHERS		2		2	2	1	2		7	16(1%)
OWN										(72%)

*KUM ; Keimyung University KUP ; Kyungpook U. RM ; Recent Medicine KMA ; J. Korean Med. Association
FJ ; Foreign J. OWN ; J. of each Department

Table 7. Distribution of the Articles according to the Research Fund

Fund\Year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SUM
TUKSU				10	18	14	14	25	20	101
G R F(general)				1	2	2	2	3	2	12
HANGOK Local Funds				1	1	2	4			8
G R F(special)							2	1	1	4
KAPJONG Funds							2	3	5	10
BISA Funds								2	3	5
ASAN Funds						1	1	1		3

TUKSU : speical research funds GRF : government research fu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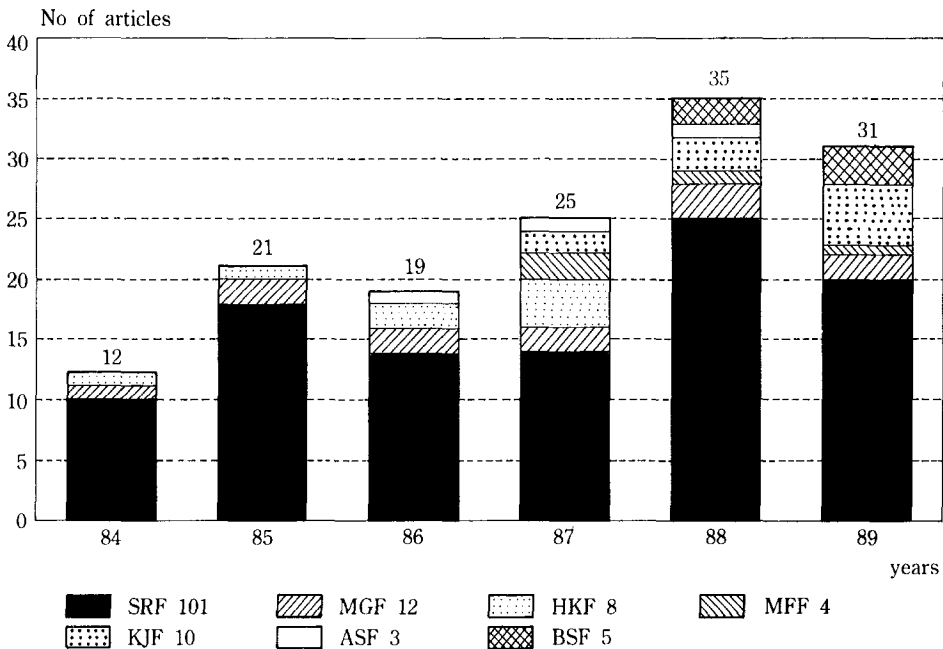


Fig 6. Distribution of the articles according to the research fund.

啓明醫大 論文集에 19%(249편), 最新醫學 3%(41편), 기타에 1%(16편) 掲提되었다. 특히 外國學會誌(美國, 日本 등)에 2%(24%) 發表되었는데 1983년에 처음으로 外國學會誌에 發表된 이래 해가 거듭될수록 많은 論文이 수록된 것은 그만큼 教授들이 外國學會에 대한 關心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7) 醫學研究的 環境 및 研究費에 대한 分類(표 7, 그림 6)

研究하는 데는 研究費에 대한 調達이 가장 基本的인 要件이므로 資金出處를 分析해 보았다. 우리 教授가 支給받는 研究費의 種類는 文敎部에서 支給되는 一般課題와 自由公募課題 研究費, 啓明大學校에서 支給되는 甲種 및 飛獅 研究費, 慶北大學校 醫科大學에서 支給되는 漢谷醫學 研究費, 峨山社會福祉 財團

研究費와 東山醫療院에서 支給되는 特殊課題 研究費등이 있다.

文敎部 一般課題研究費, 漢谷醫學研究費, 特殊課題研究費는 1984년 부터 支給받기 始作하였고 峨山醫學財團 研究費는 1986년, 文敎部 自由公募課題 研究費, 甲種研究費는 1987년, 비사 研究費는 1988년 부터 支給받았다. 특히 研究費의 金額도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경쟁률도 치열한 文敎部 自由公募研究費는 4명이 支給 받았으며 앞으로도 많이 申請해서 支給 받을수 있는 分野로 생각된다.

文敎部 一般課題 研究費는 모두 12명이 支給 받았으며 甲種과 研究費는 各 10명과 5명이 支給 받았고 특히 많은 人員이 支給 받은 醫療院 特殊課題 研究費는 別途로 分類해 보았다(표 8, 그림 7). 1984년에 처음 10명이 支給받기 始作해서 1985년 18명, 1986년

Table 8. Distribution of the Articles achieved by the Specific Research Fund

Classification\Year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ANIMAL				2	3	3	4	1	3
JOINT				1	4	2	5	1	4
DEGREE					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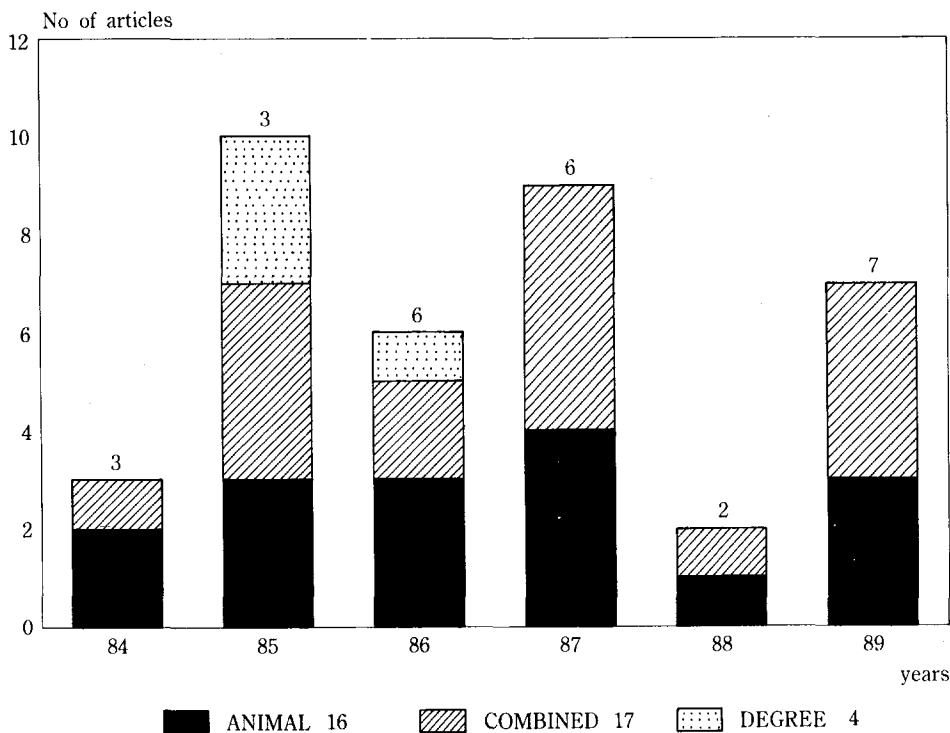


Fig 7. Distribution of the articles achieved by the specific research fund.

14명으로 점차 增加하였고, 1988년 25명, 1989년 20명으로 모두 101명이支給받았다. 그런데 研究費 使用은 大部分 研究課題에 使用되겠지만 다른곳에 流用되는 傾向도 없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것을 分析해보면 첫째 相當한 金額이 他校에서 學位 取得하는데 補助費로 使用된 것으로 1985년 3편, 1986년 1편이었으나 實際로는 이 보다 더 많을 것으로 史料되었다. 둘째 어떤 課題는 主任教授 이름으로 研究費申請이 있었는데 論文이 發表된 것은 碩士課程 學生 名義로 發表된 境遇도 있었다. 患者를 對象으로 하는 人體實驗에서는 研究費가 使用되지 않고 患者가 負擔해야하는 非倫理的 研究方法도 內包되어 있을 것으로 史料되었다. 그리고 病院實驗室을 利用할 경우 研究者가 負擔해야할 經費의 일관성이 결여된 듯한 느낌이였다.

8) 單行本 刊行物에는 人체해부, 의용기생충학 실습, 성형외과학, 척추마취의 임상등 모두 4권이였다.

考 察

醫科大學의 任務는 가르치는 일과 研究하는 일과 진료하는 일이다. 그리고 廣意의 醫學은 學問(醫學과 가르침)과 醫術(진료)과 醫道(倫理)로 構成된다. 著者는 이를 醫學의 三位一體라 이름지어 보았다.

醫科大學의 使命은 “研究”한 “學問”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正常한 “倫理”속에서 바르게 實踐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 중에서 어느하나도 빠뜨릴 수 없다. 學問을 研究하지 않고 가르칠 수 없으며 研究의 기틀없이 또한 바르게 實踐할 수 없다. 그리고 實踐은 반드시 倫理의 바탕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런점으로 보아 醫科大學 教授의 使命은 이미 研究해 놓은 學問을 잘 가르치는 일과 實踐(진료)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當然하겠으나 根本的인 觀點에서는 研究(research)하는 使命이 가장 으뜸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研究”의 뜻은 “어떠한 일이나 事物에 대하여 그 原理와 現狀을 깊이 條理있게 캐고 調查하여 생각하는 일”이라고 국어 大辭典에 定義되어 있다. 英語로 表記된 research는 제조사하다, 다시찾다, 追求하다, 探求하다, 불을 밝혀서 빛추다등의 包括的인 뜻을 지니고 있다.

“research”의 語源을 보면 “re”의 거듭이란 反復의

뜻과 “search”의 찾아, 비추다의 뜻을 가진 複合語로서 反復적으로 비추어 감추진 秘密을 찾아낸다는 뜻이다.

此際에 聖經의 한 句節을 引用해보면 研究하는 일에 도움이 될줄 안다. 創世記 1:28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動物과 세가지 人格의 行動의 可能性을 賦與하였다.

첫째는 繁盛하라(multiply)하고 命하셨다. 이뜻은 人口가 많이 增加되어 共同體를 形成하여 協同하라는 含畜된 意味가 包含되어 있다.

둘째로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充滿하라(sabdue, occupy and replenish the earth)라고 하셨다. 이 말의 뜻은 研究하며 照明하여 未知의 世界, 神祕의 世界를 정복하고 모르는 分野를 開拓하라는 意味를 가진다. 이 命을 따라 人間은 創造以來로 天地萬物을 向한 不斷한 研究와 開拓으로 오늘의 文明에 到達하게 된 것이다.

세번째의 命은 萬物을 다스려라(rule over)고 하였으니 萬物의 原理를 알아서 잘 調節하라는 뜻이다. 以上과 같은 세가지 모두의 뜻을 合하면 人間은 動物과 달리 共同社會를 形成하여 하나님이 創造하신 萬物의 秘密을 研究하고 찾아서 萬物을 다스려 가라는 뜻을 含蓄하였으니 이를 代表하는 單語가 바로 “research”가 아닌가 싶다. 이 말을 言及한것은 說教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人間은 原初的으로 research의 使命이 賦與되었음을 強調하려는 데 있다. 特히 學問을 催급하는 教授의 第一되던 任務를 指摘한다면 두말 할나히도 없이 바로 學問의 研究일 것이다.

啓明大學校 醫科大學은 設立된지 벌써 江山도 변할 수 밖에 없다는 열둑을 맞이하게 되며 그동안 제6회 卒業生을 좋은 成績으로 排出하였고 제7회의 卒業을 目前에 두고 있다. 內面的으로는 없는 時間을 割愛해서 研究에 몰두한 結果로 1335편의 많은 論文을 내어 놓게 되었다.

이 視點에서 研究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爲하여 教授 모두의 念願으로 “醫學研究의 現況과 改善方案”에 關한 討議를 教授全員の 滿場一致로 可決하여 Kolon 호텔에서 개최된 教授研修會의 主題發表는 醫學研究論文의 分析이란 題目으로 發表하였고 이어서 (1) 醫學研究의 環境 (2) 研究能力의 涵養방안 (3) 基礎, 臨床協同研究 등 세 그룹으로 갈라서 分科 討議를 하였다. 이상에서 討議한 內容을 간추리고 著者의 意見을 包含하여 本 論文의 討論內容으로 하

였다. 結果에서 이미 言及된 內容은 피하기로 한다.

分析에 따른 教室別 論文의 數는 해가 거듭할수록 높았으며 研究에 관한 關心度가 높아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특별히 醫療院 特殊科題研究費가 支給되기 始作한 以後부터 더욱 活性化 되었다.

教室別 論文數를 보면 教室에 따라 隔差가 심하였으나 教室員數와 어느정도 比例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小規模 教室에서 論文數가 특별히 많은 境遇는 1例 혹은 2例의 症例報考가 많았으며 基礎醫學教室보다 臨床醫學教室論文數가 월등히 많은 것은 臨床醫學教室에는 專攻醫를 포함한 教室員이 많았으며 臨床症例와 臨床data가 많았다. 反面에 基礎醫學教室의 論文은 大部分 動物實驗이었다. 따라서 論文의 數만 가지고 各 教室의 努力의 정도를 評價하기는 힘들었다. 內容面에서 보면 일부 教室에서는 두드러지게 研究에 熱中하고 있음을 보였다. 이와같은 統計資料로써 量的인 努力은 쉽게 評價될 수 있으나 質的인 論文 改善을 위하여 行政的인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論文을 種類別로 分類하기가 쉽지않아 關心있는 몇가지 項目으로 나누어 分類하였다. 총 1335편의 論文中에 18%인 197편이 症例報考였다. 여기에 나타난 18%는 論文題目에 症例報考라고 記錄된 것만을 計數하였으므로 全體 症例數는 25-30%가 될것으로 推算되었다. 이는 全體 論文數에 比하면 상당히 높은 比率이다. 症例報考도 상당히 價値있는 論文이 될수 있으나 症例報考의 內容에 論文의 特徵과 自身의 分명한 主張이 包含되어야 하며 單純히 反復하는 식의 症例 止揚해야 할 것이란 느낌도 들었다.

두번째는 많은량인 臨床的, 統計的 考察이었다. 考察의 比率이 10% 정도 차지하였으나 均衡이 맞지않는 듯 하였다. 그리고 考察이란 單語는 우리나라에서 善好하는 單語로써 습관처럼 使用하는 듯하다. 그러나 歐美에서 發行되는 이름있는 雜誌에는 考察이란 單語를 좀처럼 찾아 볼 수 없다. 考察은 英語로 consideration 翻譯하였는데 討議(discussion)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論文에는 考察이 自動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따라서 論文의 題目은 內容을 代表할 수 있는 核心을 簡單 명료하게 標記하여야 된다. 臨床研究에서 考察이 많다는 말은 實驗的研究가 적다는 말과도 같다. 統計的 分析은 그 資料의 新빙성에 따라 대단히 價値있는 論文이 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全般的인 記錄狀態가 新빙성이 적은 경우가 많으므로 모두가 應用할 수 있도록 統計資料에

新빙성이 賦與되어야 할 것이다. 論文에 따라서는 協同하여 研究해야 할 境遇가 많다. 본 分析에서 協同論文의 比率이 5% 정도이나 이중 大部分은 臨床的인 data을 얻을때 두 教室과 혹은 그 以上이 關聯되어 있으므로 著者들이 屬해있는 各 教室의 名稱이 들어가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內科-放射線科, 外科-病理科, 外科-麻醉科등이 있다. 臨床醫學教室間의 상호 有機物인 補完效果를 가지기 위하여 協同하여 研究하는것은 바람직하나 본 分析에서는 基礎醫學과 臨床醫學分野가 協同한 論文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大學院 課程이 생긴 以後부터 점차 胎動하는 傾向이었다. 參考文獻의 利用은 實際로 引用된 論文만을 등제해야 할 것이며 參考文獻을 모양세로 늘어놓는 듯한 느낌의 引用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參考文獻을 引用하는데 있어서 外國論文을 善好하는 傾向이었으나 韓國論文도 國際的인 index medicus에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index를 만들어 우리가 發表한 우리의 論文을 우리가 愛用하는 態度가 필요한 것이다.

著者名의 등제도 마찬가지다. 1335편 중에 單獨 著者도 많았으나 어떤 論文은 症例報考에 6-7명의 著者를 羅列해 두었으니 論文에 關與하지 않은 사람도 包含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論文의 著者를 눈여겨 보면 一般的으로 專攻醫, 專門醫, 科長 등으로 이름을 序列順位로 羅列하는 傾向도 있는데 論文의 著者名은 어디까지나 그 論文에 寄與한 寄與度에 따라 제1 著者, 제2 著者의 順位로 적어야 마땅하며 論文에 關與하지 않은 教室員을 包含하는 것은 止揚해야 할 것이다. 發表된 論文은 거의가 分科學會誌에 揭提되었으나 때에 따라서는 關聯된 他分野의 雜誌에 投稿하는 것도 서로의 理解를 돕기 위하여 바람직하다 하겠다. 특히 index medicus에 등제된 世界 有名雜誌에 投稿하여야 自己의 論文이 널리 利用되고 認定받을수 있는 世界의 舞臺에 登場하게 되는 것이다. Index medicus에 등제된 國內雜誌로는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과 Yonsei Medical Journal이 있다. 이와같이 國際舞臺에 내놓을 수 있는 良質의 論文을 위하여서는 行政的인 制度的 格려가 要求된다.

醫學研究의 環境 및 研究能力의 함양방안에 관하여 分科討議 하였다. 우선 研究施設, 研究費 및 人力管理에 관하여 생각해 보았다.

本校의 研究室은 中央實驗室 및 動物實驗室이 있다. 中央實驗室은 大衆的 利用의 理解가 부족한 듯

하고 動物實驗室은 裝備와 施設이 대단히 不足하다. 動物實驗室은 醫科大學이 出帆하여 基礎醫學教室에서부터 始作되어 해가 거듭됨에 따라 臨床에서도 動物實驗의 실험율이 높아져가고 있으므로 行政府는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本格的인 研究를 위하여서는 教室別 實驗研究室이 마련될 수 있는 將來 計劃을 세워야 할 것이다. 현재 基礎醫學教室에는 教室別 研究室이 있으나 臨床教室에는 全無하다.

研究費는 研究의 基礎가 되는 要件이다. 우리의 現實은 研究費 支援이 너무나 貧弱하다. 分析해서 指摘했듯이 文敎部의 一般課題 研究費, 自由課題公募 研究費가 있으나 支給 받기란 대단히 힘들다. 그외에 校內에서 支給하는 비사 研究費 및 特殊課題研究費 등이 있어서 多少 과거 보다는 改善되는 추세이며 研究다운 研究를 위해서는 태 不足이다. 研究費 支援은 研究者의 努力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行政府 내지 國家의 政策에 의해서 改善될 수 밖에 없다. 著者는 여기서 研究費의 教室別 運營을 強調하고 싶다. 日本을 爲始한 先進教室들은 研究費를 여러 角度로 모아 教室自體에서 運營한다. 著者의 생각으로는 특진비를 研究費로 轉向하는 方法을 暮索해 보았으면 좋을 듯하다. 人力管理는 臨床教室에서는 진료에 치중하게 되므로 研究할 人的資源이 不足하다. 앞으로는 實驗室運營과 임상진료를 區別하여 運營할 수 있을 정도로 人的, 物的資源이 뒤따라야 軌道에 오른 研究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것은 教室 및 學校內 研究 분위기, 所爲 말하는 면학 분위기가 形成되어야 할 것이다. 研究費 및 施設과 人員補強 문제들은 金錢과 直結되는 問題이므로 經濟의 成長과도 直結되어 있다. 우선 모든 教授는 면학열을 爲한 校內 분위기를 組成해야 할 것이며 밤늦게까지 研究室에 불이 켜있는 先進國을 따라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行政府는 여러 角度로 研究하는 教授를 격려하는 方案이 마련되는 등 行政적으로 연구분위기를 高潮시켜야 할 것이며 此際에 모든 教授는 스스로 自覺해야 할 것이다. 특히 近年에 海外 研修 教授가 많아 집에따라 可及의 research의 分野에 신경을 쓰도록 장려해야 할 것이다.

本 學校 산하 教室에서 出刊된 單行本은 아직 4 권밖에 되지 않는다. 單行本은 쉬운 努力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學校에서 장려하여 先進國과 같이

單行本을 많이 出刊하도록 誘導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研究에 대한 倫理問題이다.

先進國에서는 倫理委員會를 거치지 않고 人體實驗을 할 수 없다. 本 기관 산하에 研究倫理委員會를 設置하여 健全한 研究風土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며 가르치는 일과 研究하는 일 모두가 倫理의 바탕위에 세워져야 할 것이다.

要 約

1981년 啓明大學校 醫科大學이 設立된 以來 10돌을 맞이하게 되는 뜻깊은 해이며 初創期の 어려움 중에서도 총 1335편의 많은 論文이 出版되었다. 9년동안 모여진 우리의 論文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精誠이 담긴 우리의 論文을 되돌아 보고 分析하며 反省해 봄으로 더욱 發展의인 研究에 도움이 될 것으로 안다.

1981년에 19편이 發表된 以後 해가 거듭될수록 論文의 量的인 수가 顯著히 增加하여 총 1335편을 分析한 結果 症例報告가 18%, 臨床去考察 19%, 統計的考察 0.7% 였으며 基礎醫學教室과 臨床醫學教室과의 協同論文은 5% 이었고 해마다 增加되는 추세였다.

論文의 紙面數는 症例報告를 除外한 大部分의 論文이 5쪽이상 이었으며 參考論文의 많은 引用을 善好하는 傾向이었다.

研究한 論文은 각 分科學會誌에 大部分 게재하였고 啓明醫大論文集이 19%, 最近醫學 3%, 慶北醫大 論文集 2%, 大韓醫學協會誌와 其他 1%, 外國學會誌에 2% 게재 되었다.

研究費는 1984년에 처음 申請되었으며 支給받은 研究費 種類는 文敎部 自由公募 및 一般課題 研究費, 啓明大學校 甲種과 비사 研究費, 漢谷 醫學財團 研究費, 峨山 社會福祉財團 研究費, 特殊課題研究費등이었다. 1984년부터 支給된 研究費는 每年 申請者가 增加하여 1989년 末까지 총 143명이 支給받았으며 特히 特殊課題研究費 申請者는 101명으로 가장 많았다.

參 考 文 獻

1. 배정인, 전재규: 大韓麻醉科學會誌의 分類와 所感, 大韓麻醉科學會誌, 1984; 17: 149-177.